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국조선해양, 3척 수주

현대미포조선이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40,000CBM급 LPG선 2척과 4만톤급 PC(석유화학제품선) 1척 등 총 3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PC계약에는 동형선에 대한 옵션분 1척이 포함됐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베트남 조선에서 건조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대한조선 3+3척 수주 낭보

대한조선이 3개의 유럽 선사들로부터 Aframax급 탱커 3+3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2022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대한조선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약 2년 치의 건조물량을 확보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Euronav, 선대 확충자금 7억달러 보유

벨기에 탱커 선사 Euronav는 7억달러 정도의 활동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금으로 선박을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됨. 현재 운임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박의 가격은 낮아진 상태이므로 선대 개선작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한국카본, 현대삼호 보냉재 공급

한국카본이 1,400억원 규모의 LNG화물창용 보냉재를 수주했다고 보도됨. 이는 한국카본의 2019년 매출액의 54.27%에 해당한다고 보도됨. 한국카본은 2023년 11월 10일까지 현대삼호중공업에 LNG보냉재를 공급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Seaspan launches into the big-league with order of megamax double

Seaspan Corp는 24,0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진행중이라고 보도됨. 2척의 컨테이너선은 18년 장기 용선계약하에 발주되며 인도기한은 2023년 상반기까지라고 보도됨. 전통 연료 시스템을 채택했으나, 배기ガ스 감축 설비를 탑재한다고 보도됨. (TradeWinds)

Hapag-Lloyd seals \$890m green financing for new megaships

독일의 컨테이너선사 Hapag-Lloyd는 친환경선박 건조를 위해 8.89억달러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보도됨. 지난 12월 Hapag-Lloyd는 대우조선해양과 체결한 23,500TEU급 컨테이너선 대량 계약한 바 있음. (TradeWinds)